

추모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항일독립과 민주건국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 선생께서 탄생하신지 108주년이 되는 생신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선생께서 이 땅에 오셔서 55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헌신하신 위대한 발자취를 살펴보고 추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처럼 탄신추모의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선생의 위업을 기려서 탄신추모행사를 받들어 올립니다마는 특히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거행한 추모식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고하선생을 1997년 12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것을 기념하여 광화문 옛 동아일보사 건물에서 유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는 연말인데다가 정권교체에 이어 밀어닥친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아서 연장전시를 하고 연말에 성대하게 종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하선생을 기리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의 덕택이었기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므로 누구나 자연히 나라만들기에 진력하시다가 쓰러지신 고하선생을 더욱 간절하게 추모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회고컨대 선생께서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의 멍에 속에서 신음하던 36년동안 민족의 등불이 되어 선두에서 겨레의 앞길을 비추면서 악전고투하신 것은 우리국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 가던 구한말 19세의 청년으로 구국의 큰 뜻을 품고 평생의 동지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과 함께 일본유학의 길에 오르셨다가 불과 2년만에 나라를 잃는 국치를 당하셨으니 그때의 비통하셨던 선생의 심정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의 비운과 함께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끊거나 해외로 망명하여 싸우신 의인열사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하선생께서는 결연히 적극적 구국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몸소 굴욕과 절망과 무지와 빈곤속에 헤매는 겨레의 품속으

로 뛰어들어 모든 고난을 거래와 함께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선생의 이러한 결단과 자세는 애국의 열혈이상으로 불굴의 투지와 인내와 그리고 원대한 경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3·1운동을 계획·조직하시고, 동아일보의 총수로서 민족정신을 대변·고취하는 동안 누차의 옥고를 개의치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신 것은 선생께 있어서는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나 다름없게 생각됩니다. 이같은 선생의 희생적 투쟁은 대한민국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중망(중망)을 짊어진 채 선생이 건국창업의 숭고한 업무의 중심에 서시게 된 것은 사리의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민족진영을 통합한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인 동시에 중간된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나라 세우기에 침식을 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고생하신 해외망명지사들의 환국영접, 구름같이 모여드는 동지들과 함께 신탁통치반대를 논하면서 새로 건설할 나라의 틀을 설계하기에 해방의 기쁨을 느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강인한 투지와 원대한 경세방략을 펴볼 기회를 미처 잡기도 전에 폭도의 흉탄으로 그 고매한 일생을 마감하셨으니 온 국민이 국운의 비색함과 비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의 파란만장한 55년의 생애는 민족불멸과 독립필지의 확고한 신념에 터잡은 민족사랑과 나라세우기에 바치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실로 선생이야말로 정부도 없는 우리 민족의 암흑기에 민중과 더불어 있으면서 낙망과 좌절이 일세를 휩쓰는 가운데서도 역사의 진운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굳게일학같이 특립하여 항시 조국광복의 등불을 밝힌 선각자이셨습니다.

선생이 가신지 이미 반세기도 더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겨레는 아직도 선생의 큰 뜻을 제대로 완전하게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반쪽 남녘에서나마 민주헌정과 경제발전을 가져온 것은 다행이지만 고물가와 실업으로 점철되는 경제위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국토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선생의 묘전에서 어려운 때를 당할 때마다 위대한 선각자를 한층 더 추모하는 충정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후학들은 선생께서 생전에 것처럼 사랑하시던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롭고 부강하여 세계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